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목포·무안 거리두기 ‘제각각’

목포 확진자 상당수 무안 거주 불구 지자체간 조율 없어

목포시만 유흥시설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실효성 의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접 지자체간에도 따로따로 시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목포시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받는 반면 무안군은 적용을 받지 않아 사회적거리두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의 불만 또한 크다.

목포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사회적거리두기를 현행대로 1.5단계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집합·모임·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집합을 금

지했다.

또 식당·카페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경로당·복지시설은 일시 폐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부터 사적모임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이어지는 등 확산세가 가파르며 따른 응급 처방이다.

반면, 목포시 옥암동과 상권이 겹치는 무안 남악은 행정구역이 달라 영업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적거리두기 효과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확진자 급증을 경계하며 사

회적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 24일 발표된 확진자 6명 모두가 무안 거주자여서 목포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불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은 무안 남악·오룡지구 등에 거주하지만 목포시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목포 확진자 번호를 부여받았다.

무안군에는 이날 목포 확진자의 자녀까지 양성판정을 받아 거주자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목포시가 주말을 이용해 신속하게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하며 행정명령을 발동한 반면 무안군은 선별진료소 설치와 검사를 독려하

고, 체육시설과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을 잠정 폐쇄하는데 그쳤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는 남악에서 많이 나왔는데 영업제한은 왜 목포만 하는가요”, “목포 자영업자들 굶어 죽인다”는 등 불만을 터트렸다.

목포지역 한 자영업자도 27일 “행정명령이 코로나 확산방지 때문인데 목포에서 마시다 2·3차는 남악으로 간다면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목포=박정수기자
무안=이성기기자

광주 5개 구 공무원, 점심시간 일 안 한다



광주 북구청 세무과 민원 창구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휴무제를 다음달 1일부터가 아닌 2개월 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전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청장협의회와의 합의안을 수용했다.

민선 7기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은 2018년 단체 교섭에서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를 합의했다. 그러나 수차례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고, 다음달 1일 시행을 놓고 진

광주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를 오는 7월 도입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분부는 광주 구청장협의회와의 합의안을 받아들여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5개 자치구 구청 민원실과 광주 도심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된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창구 업무가 중단된다. 시민들은 해당 시간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6일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주민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홍보와 보완 대책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

7월1일부터 휴무제 전면 시행
구청 민원실·동 행정복지센터
낮 12시~1시 창구 업무 중단

통을 겪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의 경우 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오후 1시~오후 2시까지 2차례 나눠 점심을 먹거나,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 도중 민원인을 응대해야 했다. 공무원 인권 보장을 위해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본청은 점심 시간 민원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최윤희기자



‘봄 날씨에 산책 즐기는 시민들’

원만한 봄 날씨를 보인 26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봄꽃 사이를 지나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사죄의 말씀 드린다” 국회의원 첫 확진 이개호 의원 퇴원

담양지역위발 확진자 총 60명

국회의원 중 코로나19에 첫 확진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7일 국민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5일 코로나 완치와 감염 우려가 전혀 없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 조기 극복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민 모두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담양 당직자를 비롯해 저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14일 이 의원의 담양지역위원회 수행 비서 등 당직자들이 확진된 데 이어 이 의원도 15일 확진됐으며, 관련 확진자가 총 60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광주 37명, 전남 20명, 전북 2명, 서울 1명이다.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행비서와 일부 당

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유흥주점이나 식당 등에서 소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확진자 접촉자들이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장까지 확인되면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자가격리되는 등 지역 정가에도 후폭풍이 불었다.

담양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은 지난 20일 사죄의 뜻을 밝히고 일괄 사퇴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제10회 보성세계차(茶)엑스포

2022 10th BOSEONG WORLD TEA EXPO

·기간 2022. 4. 29. ~ 2022. 5. 5.

·장소 보성군 일원

보성세계차(茶)엑스포가 2022년에는 제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됩니다.

보성군

한국차협회

주최·주관 보성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차박물관